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54, No. 4

OPEN ACCESS

국내 대학도서관 정책 성과에 대한 현장 인식 조사*

Field Perception Analysis on Policy Outcomes of Academic Libraries

이 종 욱(Jongwook Lee)**
강 우 진(Woojin Kang)***
정 영 미(Youngmi Jung)****

〈 목 차 〉

Ⅰ. 서 론
Ⅱ. 국내 대학도서관 현황과 정책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의 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종합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수준을 대학도서관 주요 통계와 도서관 직원의 인식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대학도서관 주요 통계 지표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17개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을 설문 조사하였다. 총 369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 응답자는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도서관 발전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에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둘째, 세부과제 17개에 대한 IPA 분석 결과, 대학의 유형과 상관없이 시설 개선이나 교수-학습 지원, 학술자원 접근성 확대는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며, 도서관 정책을 개발하고 인력과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4년제 대학은 전문대학에 비해 해외 학술자원의 접근성 확대를 특히 중요시하고 있었으며,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에 비해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이나 포용적 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IPA 대각선 모형 적용 결과 모든 세부과제에 대한 수행도가 중요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추후 종합계획 수립 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모색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정책 성과, 인식 분석

ABSTRACT : In this study, we aimed to examine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 second 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ng academic libraries (2019-2023) by analyzing key statistics of academic libraries and gathering perceptions from library staff. We analyzed the changes in major statistical indicators of libraries over the past five years. Additionally, we surveyed library staff to understand their overall perceptions of the plan and their attitudes towards the 17 sub-tasks outlined in it. The analysis of 369 survey responses revealed several key findings. Firstly, most respondents comprehended the plan well and frequently utilized it for developing their librari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plans. Secondly, the IPA results indicated that regardless of the type of university, there should be a continuous focus on facility improvement, teaching-learning support, and expanding access to academic resources. Efforts to develop library policies and strengthen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were identified as crucial. Thirdly, four-year universities particular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xpanding access to international academic resources compared to junior colleges. Conversely, junior colleges perceived foundational skill-building programs and inclusive services as more significant than four-year universities. The application of the IPA diagonal model revealed that the performance levels of all sub-tasks were lower than their perceived importance levels, suggesting the need for strategies to enhance effectiveness in future comprehensive plan formulation.

KEYWORDS : Academic Library, Comprehensive Plan for the Promotion of Academic Libraries, Policy Outcomes, Perception Analysis

* 이 연구는 2023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제3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24~2028) 수립을 위한 연구」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임.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ongwook@knu.ac.kr / ISNI 0000 0004 6830 6145) (제1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rkddnwls1234@knu.ac.kr / ISNI 0000 0003 7423 4400) (공동저자)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omjung@deu.ac.kr / ISNI 0000 0004 6480 5668)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3년 12월 6일 • 최초심사: 2023년 12월 7일 • 게재확정: 2023년 12월 13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4), 415-436, 2023. http://dx.doi.org/10.16981/kliss.54.4.202312.415

※ Copyright © 2023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www.kci.go.kr

Ⅰ. 서 론

대학의 교육과 연구경쟁력 강화에 있어 대학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학생의 대학도서관 서비스나 정보자원 이용은 이들의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Goodall & Pattern, 2011; Montenegro et al., 2016).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 또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한혜영, 2005; Oppenheim & Stuart, 2004).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9)의 연구보고서에서는 대다수 연구자가 대학의 연구경쟁력에 대학도서관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제시하였고, 대학도서관의 주요 지표, 즉, 전자저널 및 웹 DB 패키지 수, 자료구입비, 대학원생 대출책 수가 증가하면 대학의 SCIE 논문 수와 논문 피인용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대학의 주요 기능에서 대학도서관이 지니는 중요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도서관은 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최근 대학도서관 이용자 연구에서 대학도서관은 여전히 도서 대출이나 개인 학습공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정영미, 2020). 반면 해외의 여러 대학도서관은 국내와 비교하여 교육 및 연구 지원 서비스의 범위가 훨씬 넓고 다양한 편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오선혜, 곽승진, 2021).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이겠지만 최재황과 이종욱(2019)은 대학도서관에 대한 투자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국내 주요 대학도서관의 전임교원 1인당 평균 도서관 직원 수는 북미의 약 36%,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북미의 약 26%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적 논의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다. 이제환(2012)은 2008년 수립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2009~2013」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을 검토하여 2013년 당시의 대학도서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언하였고, 이재원(2019)은 국내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과 정책과제의 변화 추이를 통해 미래 대학도서관의 합리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장윤금 외(2020)는 국내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요인을 기반으로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의 인터뷰, 전문가 대상의 계층적 분석 방법을 실시하여 중요도가 높은 분야 및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모두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발전계획을 향해 있다. 주지하다시피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대표적인 노력으로 교육부는 2015년에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제정 및 시행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제1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6~2018)과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하였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정책 전반에 대한 근간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현재는 제2차 종합계획의 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제3차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속성을 지니는 계획의 경우,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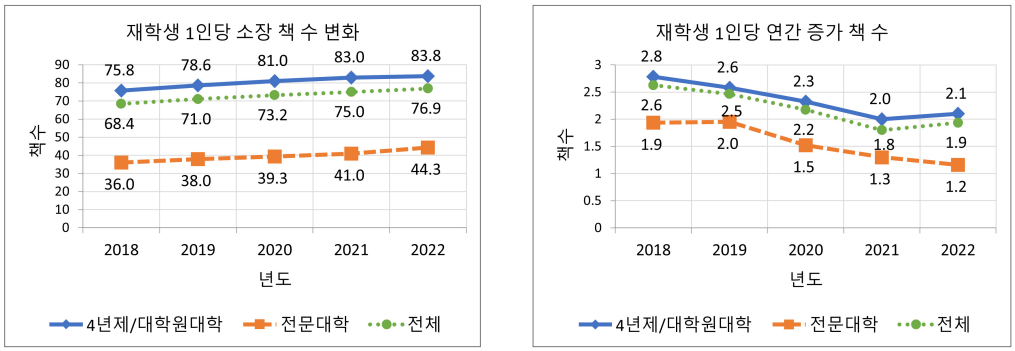
새로운 계획의 수립은 기존 계획의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및 추진 성과분석을 토대로 가능하다. 즉,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정책목표 및 핵심과제, 세부과제, 실행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재의 추진현황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현시점의 국내 대학도서관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여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계획의 종결점이자 새로운 계획을 위한 시작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시점의 국내 대학도서관 정책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및 현황 진단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차 종합계획에서 수립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 수준을 대학도서관 직원의 인식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추가로 대학의 유형에 따라 도서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소속 응답자의 인식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도서관 현장에 기반하여 실행력 있는 제3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국내 대학도서관 현황과 정책

1. 주요 통계

국내 대학도서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료, 인력, 자료구입비, 이용 부문의 주요 통계 지표에 대한 최근 5년간(2018~2022[1])의 변화를 살펴보았다(교육부, [발행년불명]). 먼저 자료 부문에서 최근 5년간 대학도서관 소장 도서 책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는데, 4년제 및 전문대학의 재학생 1인당 소장 책 수는 2018년에 약 68.4책이었으나 2022년 약 76.9책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다만 동 기간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 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4년제/대학원 대학은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문대학에서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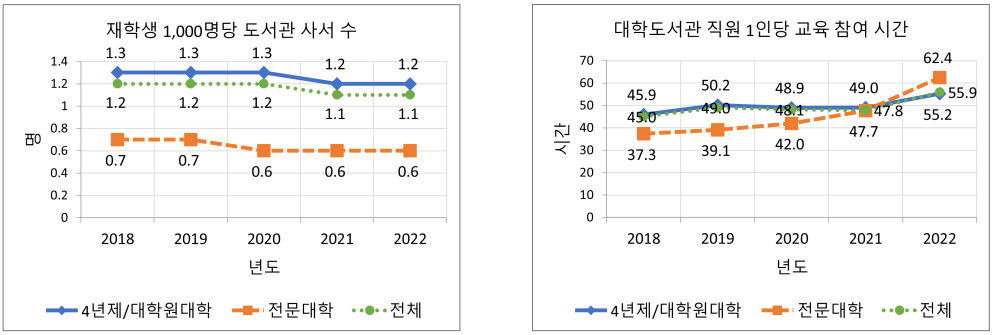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 자료 부문 주요 지표 변화

1) 기준 연도의 통계 지표는 이전 연도의 실적을 나타냄. 즉, 2018년 통계 수치는 2017년에 대학도서관이 달성한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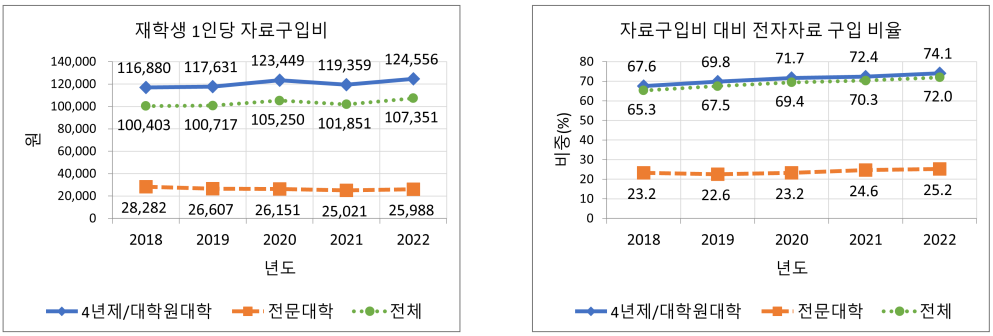
www.kci.go.kr

인력 부문에서는 먼저 4년제/대학원대학 및 전문대학의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사서 수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2018년에 1.2명이었으나 2022년에 1.1명으로 줄어들었다(〈그림 2〉 참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재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수 기준 도서관 사서 수가 감소하는 것은 사서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대학도서관 직원 1인당 교육 참여시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 1인당 45시간 교육을 받았으나 2022년에는 약 56시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최근 5년간 인력 부문 주요 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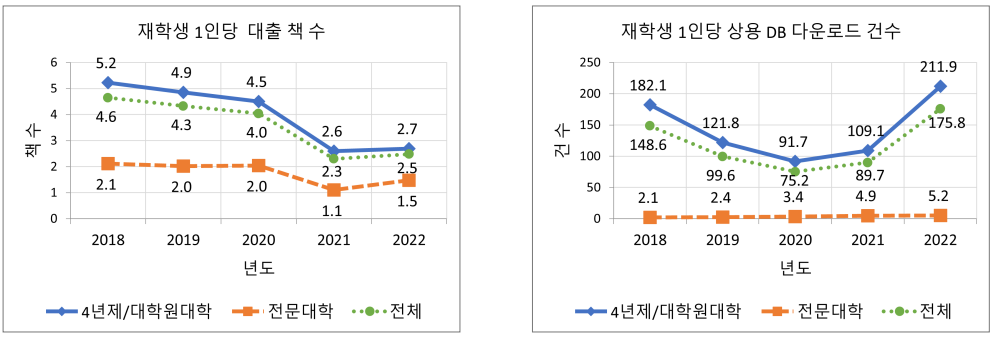
예산 부문에서는 먼저 대학 총결산액 대비 자료구입비 비율을 살펴보았으며, 4년제/대학원 대학은 그 비율이 약 0.9% 수준이며, 전문대학은 약 0.2%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2013)에 제시된 4년제 대학 2~2.5%, 전문대학 1%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다음으로 국내 대학 평균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2018년 100,403원에서 2022년 107,351원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학생 수 감소 및 전자자료 구독료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자료구입비가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자료구입비에서 차지하는 전자자료 구입비 비율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데(〈그림 3〉 참조), 전자자료 구독료는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게 인상되고 있어 학술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더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최근 5년간 예산 부문 주요 지표 변화

www.kci.go.kr

도서관 이용 부문에서는 재학생 1인당 대출 책 수와 상용 DB 다운로드 건수를 조사하였다(〈그림 4〉 참조). 그 결과 재학생 1인당 대출 책 수는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2021년 통계(실제로는 2020년 실적)에서 급감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완화되는 2022년 통계부터는 소폭 증가하여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반해 상용 DB 다운로드 건수는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점차 감소하다가 코로나-19 상황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였고, 그중에서도 전자책 이용의 증가가 이러한 증가 추이에 기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4〉 최근 5년간 도서관 이용 부문 주요 지표 변화

2.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가. 배경 및 발전과정

교육부는 2002년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학도서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의 비전과 추진목표, 추진과제를 제시한 '초, 중등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대학도서관의 문제점을 진단하지만,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지는 못하였고, 연속적인 정책의 입안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한계가 있다(이재원, 2019). 이후 2008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2조에 의거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5년마다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대학도서관 발전종합계획(09~13, 14~18)'을 수립하였으며,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발전종합계획(09~13)'은 대학도서관의 장서, 자료구입비 등 양적 측면의 성장에 성공적이었으나,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정이 불발되며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이재원, 2019).

'발전종합계획(14~18)'의 정책 일정 중 대학도서관 진흥법이 제정(2015. 3. 27. 법률 제13222호) 및 시행(2015. 9. 28)되었으며, 교육부는 법 제8조에 의거하여 '제1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

www.kci.go.kr

(16~18)'을 수립하였다. '제1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16~18)'은 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비를 확대하고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계획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술정보자원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다음으로 수립된 '제2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19~23)'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역할 및 기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교육부, 2019).

나.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은 대학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대학도서관 기능과 역할 혁신을 목표로 한다. 제2차 종합계획의 7대 추진과제와 17개 세부과제는 다음 〈표 1〉과 같으며, 3개 분야(교육, 연구, 기반)의 핵심 성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 강화', '평가 모형의 다양화로 대학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 추진'을 설정하였다.

〈표 1〉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 7대 추진과제와 17개 세부과제

분야	추진과제	세부과제	추진기관
교육	① 수업 및 학습 활동 지원 강화	①-1.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확대	KERIS 대학
		①-2. 학생들의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 운영	대학
		①-3. 학술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서비스 확충	KERIS
	② 창의적·협력적 학습환경 구축	②-1. 도서관 시설 개선 및 공간 혁신	KERIS 대학
		②-2. 디지털 매체 교육 확대	대학
연구	③ 해외 학술자료 구독 및 공동활용 확대	③-1. 대학라이선스 구독 확대	교육부 KERIS
		③-2. 해외전자저널의 한국형 구독 모델 개발 및 협상 지원	교육부 KERIS
		③-3. 무료공개 학술자원(OA) 체제 지원	교육부 KERIS
		③-4.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활용도 증대	교육부 KERIS
	④ 연구지원 큐레이션 서비스	④-1. 연구성과 분석 서비스	KERIS 대학
		④-2. 맞춤형 지원 서비스	대학
	⑤ 연구 윤리 확립 지원	⑤-1. 연구윤리 교육 확대 및 사전 예방체계 마련	KERIS 대학
		⑤-2. 연구윤리 전문 역량 강화	KERIS 대학
기반	⑥ 대학도서관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⑥-1. 대학도서관 진흥 정책 개발 및 성과 홍보 강화	교육부 KERIS
		⑥-2.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재정 확충	교육부 KERIS
	⑦ 대학도서관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6성과확산	⑦-1. 대학도서관 발전을 견인하는 대학도서관 평가 추진	교육부 KERIS
		⑦-2. 우수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교육부 KERIS

www.kci.go.kr

Ⅲ.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인식과 성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 대학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종합계획에 대한 인지 수준, 활용 현황,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 응답자의 배경정보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협조로 전국 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에 대한 참여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총 369명이 설문 응답을 완료하였다. 설문 문항과 측정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설문 영역 및 문항 구성

영역	문항 및 측정 방식
Ⅰ.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에 대한 인식	인지 수준(범주형), 중요도(범주형), 중요도 낮은 이유(개방형), 활용 방식(범주형, 복수 응답), 활용도 제고 방안(7점 척도, 복수 응답)
Ⅱ.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 세부과제의 중요도와 수행도	세부과제별 중요도 및 수행도(7점 척도)
Ⅲ. 응답자 배경정보	성별(범주형), 연령(범주형), 신분/직책(범주형), 근무기간(범주형), 대학 유형 및 소재지(범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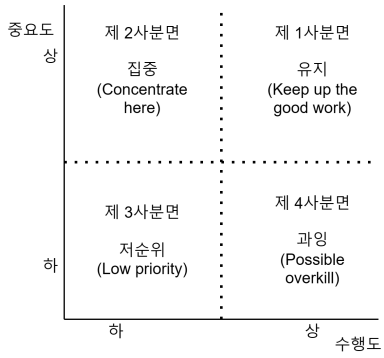
2. 자료 분석

설문 응답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수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Ⅰ~Ⅲ 영역(〈표 2〉 참조)의 응답에 대한 빈도(범주형) 또는 평균(7점 척도)을 살펴보았다. 특히 Ⅱ 영역에서는 세부과제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와 성취도를 동시에 측정하여 비교-분석하는 평가기법인 '중요도-수행도(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분석(Martilla & James, 1977)을 적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중요도와 수행도 간의 인식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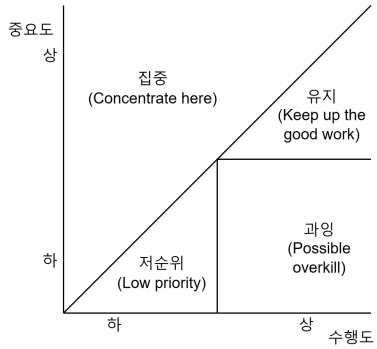
IPA 분석을 통해 세부과제를 4개의 사분면 즉, IPA 매트릭스에 나타내었으며,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은 과제(제 1사분면), 높은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은 과제(제 2사분면),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은 과제(제 3사분면), 낮은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높은 과제(제 4사분면)를 파악하였다(〈그림 5〉 참조). 그렇지만 이러한 사분면 모형은 기준이 되는 십자선을 결정하는 것이 주관적인 편이며, 기준선에 가깝게 위치하는 요소나 제 4사분면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해석하는 방식이 모호한 한계가 존재한다(Bacon, 2003; Boley, McGehee, & Hammett,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행도가 중요도를 초과하는 영역과 수행도가 중요도에

www.kci.go.kr

비해 저조한 영역을 구분하는 45도 우상향 대각선을 활용하여 아래 〈그림 6〉에서 제시된 해석을 병행하였다(Bacon, 2003; Boley, McGehee, & Hammett, 2017; Chen, 2021).



〈그림 5〉 IPA 매트릭스 사분면 모형



〈그림 6〉 IPA 매트릭스 대각선 모형

다음 단계에서는 응답자의 소속 대학 유형(4년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에 따른 Ⅰ(활용 방식 제외) 영역과 Ⅱ 영역 문항의 응답에 대한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으며, 분산분석 결과가 유의한 경우, Bonferroni correction을 활용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응답자 소속 대학의 다수를 차지하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 비교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Ⅰ 영역의 인지 수준과 중요도에 대한 응답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치환하였고, 나머지 문항의 경우 7점 척도를 평균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응답자 배경정보

설문 응답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369명 가운데 30대가 127명(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 108명(29.3%), 40대 95명(25.7%), 20대 35명(9.5%) 등의 순이었다(〈표 3〉 참조). 또한 이들의 신분/직책은 대학도서관 실무자가 259명(70.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경영자/관리자가 107명(29.0%)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학도서관 근무경력은 '20년 이상'이 111명(30.1%)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77명(20.9%), '1년 이상 5년 미만'이 71명(19.2%),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53명(14.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근무경력을

www.kci.go.kr

가진 직원들이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고용 형태는 대부분 정규직(298명, 80.8%)이었으며, 일부 비정규직(67명, 18.2%)과 기타(4명, 1.1%)가 있었다. 대학의 유형 분포는 4년제 대학 소속이 282명(76.4%)이었고, 전문대학 소속이 70명(18%)이 있었다. 또한 응답자 대학의 소재 지역이 수도권이 149명(40.4%)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국적으로 고른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응답자 배경정보

변수	범주	빈도(명)	비율(%)
연령	20대	35	9.5
	30대	127	34.4
	40대	95	25.7
	50대	108	29.3
	60대 이상	4	1.1
신분 또는 직책	실무자	259	70.2
	경영자 및 관리자(과장, 팀장 이상)	107	29.0
	기타	3	0.8
근무경력	1년 이하	29	7.9
	1년 이상 5년 미만	71	19.2
	5년 이상 10년 미만	77	20.9
	10년 이상 15년 미만	53	14.3
	15년 이상 20년 미만	28	7.6
	20년 이상	111	30.1
고용형태	정규직	298	80.8
	비정규직	67	18.1
	기타	4	1.1
소속대학 유형	4년제 대학	282	76.4
	전문대학	70	19.0
	대학원 대학	17	4.6
소속대학 지역	수도권	149	40.4
	대구/경북권	52	14.1
	부산/울산/경남권	42	11.4
	전라/제주권	58	15.7
	충청/강원권	68	18.4

2.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에 대한 인식

가. 인지 수준 및 활용 현황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2023)(이하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 수준과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해 267명(72.4%)('매우 그렇다': 101명, '그렇다': 166명)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24명('그렇지 않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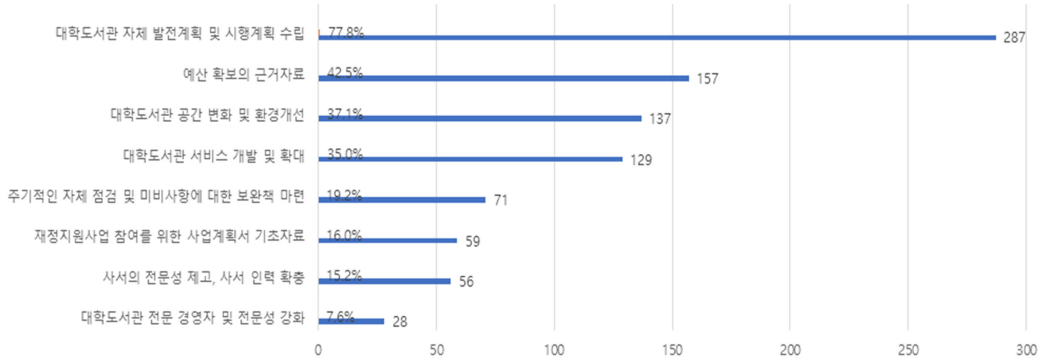
다': 21명, '전혀 그렇지 않다': 3명)이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대학 및 대학도서관에서 제2차 종합계획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는가에 대해 228명(61.8%)('매우 그렇다': 82명, '그렇다' 146명)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42명(11.4%)은 부정적인 편이었다(〈표 4〉 참조).

제2차 종합계획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N=42)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입학자원의 감소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대학의 예산이 부족하여 이로 인해 도서관의 예산 또한 부족하다는 것, 두 번째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서관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세 번째는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가 대학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제재가 없어 대학 본부 측에서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 네 번째는 종합계획 내용이 서로 다른 대학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표 4〉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인지 수준과 중요도 인식

구분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인지 수준		대학 및 대학도서관에서 제2차 종합계획의 중요도 인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101	27.4	82	22.2
그렇다	166	45.0	146	39.6
보통이다	78	21.1	99	26.8
그렇지 않다	21	5.7	37	10.0
전혀 그렇지 않다	3	0.8	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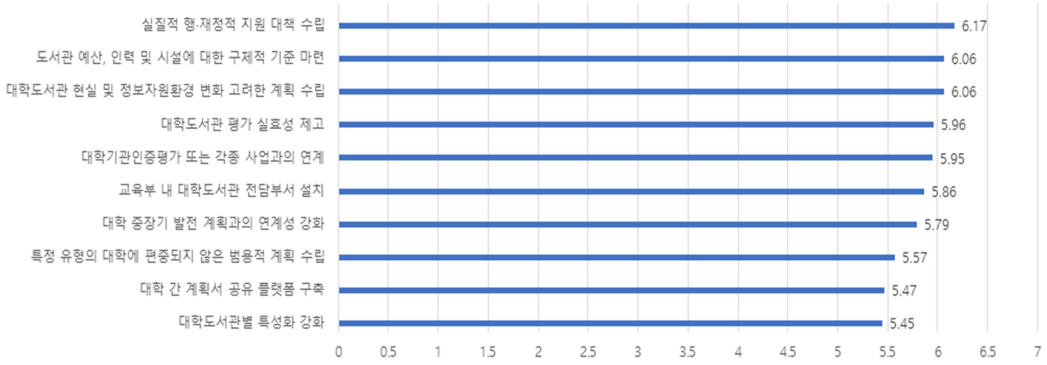
제2차 종합계획의 활용 방식을 조사한 결과, '대학도서관 자체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87명, 77.8%)에 활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산 확보의 근거자료'(157명, 42.5%), '대학도서관 공간 변화 및 환경개선'(137명, 37.1%), '대학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확대'(129명, 35.0%) 등의 순이었다(〈그림 7〉 참조).



〈그림 7〉 제2차 종합계획 활용 방식(복수 응답)

www.kci.go.kr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실질적 행·재정적 지원 대책 수립'(M=6.17)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도서관 예산, 인력 및 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M=6.06)과 '대학도서관 현실 및 정보자원환경 변화 고려한 계획 수립'(M=6.06), '대학도서관 평가 실효성 제고'(M=5.96), '대학기관인증평가 또는 각종 사업과의 연계'(M=5.95) 등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었다(〈그림 8〉 참조).



〈그림 8〉 제2차 종합계획 활용도 제고 방식

나. 세부과제의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

제2차 종합계획은 7대 추진과제에 대한 1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인식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먼저 중요도 평균이 5.5를 초과하는 세부과제는 5개, 즉 '②-1. 도서관 시설 개선 및 공간 혁신', '③-1. 대학라이선스 구독 확대', '③-2. 해외 전자저널의 한국형 구독 모델 개발 및 협상 지원', '③-3. 무료공개 학술자원(OA) 체재 지원', '⑥-2.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재정 확충'이었다. 특히 추진과제 ③영역의 세부과제가 3개 포함되어 해외 학술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중요도 평균이 5.0 이하인 세부과제는 연구 윤리 체제 마련과 관련된 '⑤-1', '⑤-2' 과제와 더불어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관련된 '⑦-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행도 평균이 5.0을 초과하는 과제는 '①-2. 학생들의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 운영', '②-1. 도서관 시설 개선 및 공간 혁신', '③-1. 대학라이선스 구독 확대', '③-2. 해외 전자저널의 한국형 구독 모델 개발 및 협상 지원', '③-4.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활용도 증대'였으며, 여기서도 ③영역의 과제가 3개 포함되어 해외 학술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대는 높은 중요성에 따라 수행도 또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수행도 평균이 4.5 이하인 과제는 '④-1. 연구성과 분석 서비스', '⑤-1. 연구윤리 교육 확대 및 사전 예방체계 마련', '⑤-2. 연구윤리 전문 역량 강화',

www.kci.go.kr

'⑥-2.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재정 확충', '⑦-2. 우수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⑤-1', '⑤-2', '⑦-1' 과제는 앞서 중요도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⑥-2.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재정 확충' 과제는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저조했는데, 아래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요도와 수행도 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④-1. 연구성과 분석 서비스', '⑥-1. 대학도서관 진흥 정책 개발 및 성과 홍보 강화', '⑦-1. 대학도서관 발전을 견인하는 대학도서관 평가 추진', '⑦-2. 우수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과제 또한 중요도와 수행도의 괴리가 큰 편이었다. 제2차 종합계획의 7대 추진과제에서 여섯 번째('대학도서관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와 일곱 번째('대학도서관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성과확산') 과제에 속하는 모든 세부과제가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은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 17개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분석

번호	세부과제	중요도 (a)	수행도 (b)	a-b		paired t
				차이	순위	
①-1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확대	5.45	4.98	0.47	12	8.60*
①-2	학생들의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 운영	5.32	5.10	0.22	17	5.83*
①-3	학술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서비스 확충	5.31	5.00	0.31	15	6.52*
②-1	도서관 시설 개선 및 공간 혁신	5.60	5.05	0.55	9	8.22*
②-2	디지털 매체 교육 확대	5.18	4.73	0.45	13	7.94*
③-1	대학라이선스 구독 확대	5.80	5.40	0.40	14	7.79*
③-2	해외 전자저널의 한국형 구독 모델 개발 및 협상 지원	5.60	5.05	0.55	8	9.63*
③-3	무료공개 학술자원(OA) 체재 지원	5.56	4.98	0.58	7	10.17*
③-4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활용도 증대	5.48	5.21	0.27	16	6.20*
④-1	연구 성과 분석 서비스	5.02	4.36	0.66	3	9.45*
④-2	맞춤형 지원 서비스	5.18	4.58	0.60	6	8.71*
⑤-1	연구윤리 교육 확대 및 사전 예방체계 마련	5.00	4.47	0.53	10	9.21*
⑤-2	연구윤리 전문 역량 강화	4.95	4.46	0.49	11	8.63*
⑥-1	대학도서관 진흥 정책 개발 및 성과 홍보 강화	5.36	4.62	0.74	2	11.36*
⑥-2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재정 확충	5.54	4.26	1.28	1	12.48*
⑦-1	대학도서관 발전을 견인하는 대학도서관 평가 추진	5.28	4.66	0.62	5	9.12*
⑦-2	우수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4.93	4.27	0.66	4	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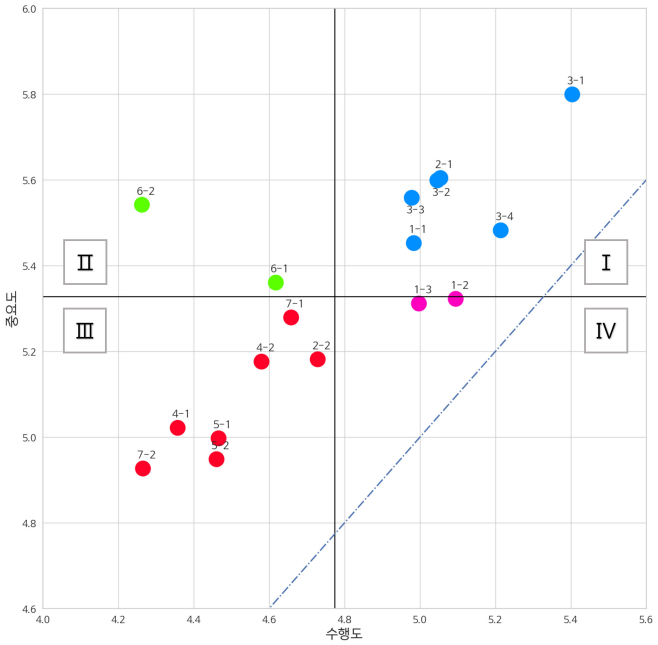
* $p < .05$

중요도와 수행도 측정 결과를 토대로 IPA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다음 〈그림 9〉와 같다. x축은 수행도, y축은 중요도이며, 교차점은 수행도 평균 5.33과 중요도 평균 4.77을 적용하였다. 먼저 사분면 모형에서 제 1사분면에는 6개 과제(①-1, ②-1, ③-1, ③-2, ③-3, ③-4)가 분류되었는데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도서관 시설 및 공간 개선, 해외 학술자원 접근성 확대가 지속적인 유지가

www.kci.go.kr

필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 2사분면에는 추진과제 ⑥영역의 2개 과제(⑥-1, ⑥-2)가 분류되어, 대학도서관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제 3사분면에는 7개 과제(②-2, ④-1, ④-2, ⑤-1, ⑤-2, ⑦-1, ⑦-2)가 분류되었으며, 디지털 매체 교육이나 연구성과 분석 서비스, 맞춤형 연구지원 서비스, 연구윤리 체제 마련, 대학도서관 평가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는 상대적으로 저 순위 과제로 나타났다. 제 4사분면에는 2개 과제(①-2, ①-3), 즉 학생 대상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 운영과 포용서비스 확충 과제가 분류되었는데, 이들 과제는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다소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존 사분면 모형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대각선 모형 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세부과제가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종합계획에 제시된 정책에 대한 성취도가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대각선 모형은 사분면 모형과 달리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인 수행도가 낮은 과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세부과제별 IPA 분석 결과

3. 소속대학 유형에 따른 인식 차이

가. 인지 수준 및 활용 현황

응답자의 소속대학 유형에 따른 종합계획의 중요성 인식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4년제 대학 직원

www.kci.go.kr

(M=3.81, SD=0.96)이 전문대학 직원(M=3.37, SD=0.95)에 비해 종합계획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F=6.23, p=.002). 또한 소속대학 유형에 따른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인식차가 식별되었는데, 이는 다음 〈표 6〉에 나타내었다. 요약하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소속된 직원은 대학원대학 직원에 비해 '도서관 예산, 인력 및 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교육부 내 대학도서관 전담부서 설치', '대학도서관 평가 실효성' 제고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한편 4년제 대학 직원은 타 대학 유형의 직원에 비해 종합계획의 '대학기관인증평가 또는 각종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전문대학 직원은 '특정 유형의 대학에 편중되지 않은 범용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표 6〉 소속대학 유형에 따른 종합계획 활용도 제고 방안 인식

항목	4년제 대학 (N=282)(a)		전문대학 (N=70)(b)		대학원대학 (N=17)(c)		F	p	사후 분석
	M	SD	M	SD	M	SD			
대학기관인증평가 또는 각종 사업과의 연계	6.10	1.12	5.64	1.44	4.82	1.01	12.14*	.000	a>b>c
특정 유형의 대학에 편중되지 않은 범용적 계획 수립	5.58	1.21	5.73	1.15	4.88	1.22	3.42*	.034	b>a>c
도서관 예산, 인력 및 시설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6.09	1.13	6.10	1.18	5.29	1.10	4.01*	.019	a,b>c
교육부 내 대학도서관 전담부서 설치	5.90	1.26	5.89	1.31	4.94	0.83	4.74*	.009	a,b>c
대학도서관 평가 실효성 제고	5.99	1.19	6.03	0.98	5.29	1.10	3.04*	.049	a,b>c

나. 세부과제의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 차이

응답자의 소속 대학 유형에 따른 17개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각각 조사하였다. 먼저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직원 간의 유의한 인식 차이가 있는 과제(①-1, ③-1, ③-2, ③-3, ③-4, ④-1, ④-2, ⑤-1)는 대부분 해외 학술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연구지원 서비스, 연구윤리 체제 마련과 관련한 것이다. 이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년제 대학과 비교하여 더욱 열악한 전문대학 도서관의 상황을 볼 때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직원 간의 중요도 인식에 대한 차이가 없는 과제로는 기초소양 함양 또는 디지털 매체 교육과 같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나 포용적 서비스 확충, 시설 및 공간 개선,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정책이나 평가 개선 등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 프로그램이나 시설 및 정책 인프라 강화에 대해서는 4년제 및 전문대학 모두에서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었다.

www.kci.go.kr

〈표 7〉 소속 대학 유형에 따른 세부과제 중요도 인식 차이

세부과제	4년제 대학 (N=282)(a)		전문대학 (N=70)(b)		대학원대학 (N=17)(c)		F	p	사후 분석
	M	SD	M	SD	M	SD			
①-1.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확대	5.56	1.14	5.19	1.24	4.71	0.99	6.77*	.001	a>b,c
①-2. 학생들의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 운영	5.40	1.17	5.24	1.29	4.41	1.00	5.75*	.003	a,b>c
①-3. 학술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서비스 확충	5.34	1.18	5.23	1.22	5.18	1.07	0.37	.693	-
②-1. 도서관 시설 개선 및 공간 혁신	5.66	1.19	5.54	1.35	4.94	0.90	2.93	.055	-
②-2. 디지털 매체 교육 확대	5.24	1.25	5.20	1.31	4.12	1.76	6.09*	.002	a,b>c
③-1. 대학 라이선스 구독 확대	5.99	1.10	5.26	1.43	4.82	1.42	16.79*	.000	a>b,c
③-2. 해외전자저널의 한국형 구독 모델 개발 및 협상 지원	5.82	1.15	5.01	1.49	4.41	1.42	19.99*	.000	a>b,c
③-3. 무료공개 학술자원(OA) 통합 검색 서비스 구축	5.71	1.21	5.21	1.46	4.53	1.42	10.01*	.000	a>b,c
③-4.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활용도 증대	5.64	1.22	5.04	1.53	4.65	1.46	9.77*	.000	a>b,c
④-1. 연구성과 분석 서비스	5.19	1.37	4.57	1.48	4.12	1.41	9.27*	.000	a>b,c
④-2. 맞춤형 연구지원 서비스	5.35	1.27	4.71	1.46	4.24	1.56	10.95*	.000	a>b,c
⑤-1. 연구윤리 교육 확대 및 사전 예방체제 마련	5.12	1.31	4.66	1.51	4.35	1.17	5.38*	.005	a>b,c
⑤-2. 연구윤리 전문 역량 강화(KERIS)	5.04	1.29	4.71	1.53	4.35	1.17	3.46*	.032	a>c
⑥-1. 대학도서관 진흥 정책 개발 및 성과 홍보 강화	5.46	1.32	5.16	1.41	4.47	1.42	5.38*	.005	a>c
⑥-2.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재정 확충	5.65	1.32	5.34	1.58	4.53	1.55	6.22*	.002	a>c
⑦-1. 대학도서관 발전을 견인하는 대학도서관 평가 추진	5.37	1.41	5.17	1.39	4.29	0.85	5.02*	.007	a,b>c
⑦-2. 우수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4.99	1.44	4.84	1.47	4.29	1.05	2.01	.135	-

다음으로 응답자의 소속 대학 유형에 따른 수행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8〉 참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직원 간의 수행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8개 과제(③-1, ③-2, ③-3, ③-4, ④-1, ④-2, ⑤-1, ⑦-1)에서 유의미하였는데, 이 중 7개 과제는 연구지원 관련으로 앞선 중요도 인식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만 대학도서관 평가와 관련한 ⑦-1과제에 대해서는 전문대학 응답자가 4년제 대학 응답자에 비해 수행도를 낮게 간주하고 있었다. 나머지 과제에서는 4년제와 전문대학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8〉 소속 대학 유형에 따른 세부과제 수행도 인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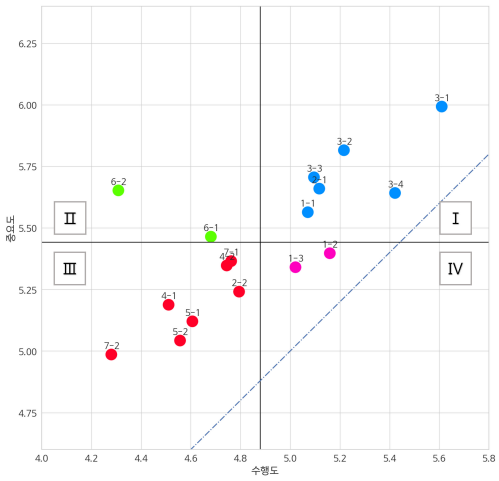
세부과제	4년제 대학 (N=282)(a)		전문대학 (N=70)(b)		대학원대학 (N=17)(c)		F	p	사후 분석
	M	SD	M	SD	M	SD			
①-1.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확대	5.07	1.31	4.77	1.33	4.41	0.94	3.23*	.041	a>c
①-2. 학생들의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 운영	5.16	1.21	5.10	1.32	4.00	0.79	7.25*	.001	a,b>c
①-3. 학술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서비스 확충	5.02	1.25	4.93	1.29	4.88	1.11	0.23	.794	-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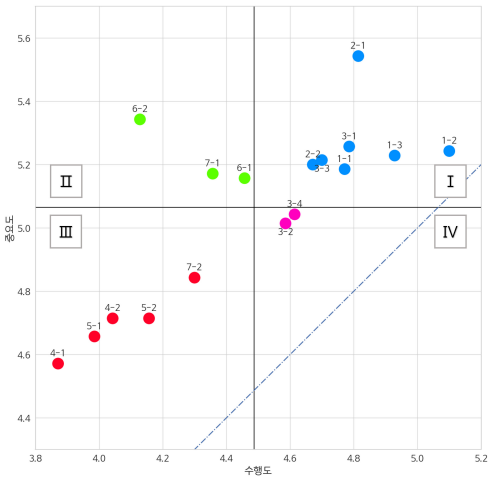
세부과제	4년제 대학 (N=282)(a)		전문대학 (N=70)(b)		대학원대학 (N=17)(c)		F	p	사후 분석
	M	SD	M	SD	M	SD			
②-1. 도서관 시설 개선 및 공간 혁신	5.12	1.46	4.81	1.61	5.00	0.87	1.20	.301	-
②-2. 디지털 매체 교육 확대	4.79	1.41	4.67	1.48	3.88	1.69	3.28*	.039	a>c
③-1. 대학 라이선스 구독 확대	5.61	1.20	4.79	1.50	4.53	1.46	15.96*	.000	a>b,c
③-2. 해외전자저널의 한국형 구독 모델 개발 및 협상 지원	5.22	1.31	4.59	1.47	4.12	1.45	10.37*	.000	a>b,c
③-3. 무료공개 학술자원(OA) 통합 검색 서비스 구축	5.10	1.34	4.70	1.73	4.18	1.42	4.99*	.007	a>b,c
③-4. 외국학술지지원센터 활용도 증대	5.42	1.21	4.61	1.56	4.24	1.56	15.83*	.000	a>b,c
④-1. 연구성과 분석 서비스	4.51	1.54	3.87	1.49	3.82	1.33	6.01*	.003	a>b
④-2. 맞춤형 연구지원 서비스	4.74	1.46	4.04	1.52	4.06	1.56	7.47*	.001	a>b
⑤-1. 연구윤리 교육 확대 및 사전 예방체제 마련	4.61	1.34	3.99	1.54	4.12	1.27	6.25*	.002	a>b
⑤-2. 연구윤리 전문 역량 강화(KERIS)	4.56	1.41	4.16	1.61	4.12	1.27	2.64	.073	-
⑥-1. 대학도서관 진흥 정책 개발 및 성과 홍보 강화	4.68	1.42	4.46	1.57	4.24	1.39	1.29	.276	-
⑥-2. 대학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재정 확충	4.31	1.72	4.13	2.00	4.06	1.60	0.41	.665	-
⑦-1. 대학도서관 발전을 견인하는 대학도서관 평가 추진	4.76	1.47	4.36	1.57	4.18	1.01	3.07*	.048	a>b
⑦-2. 우수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4.28	1.56	4.30	1.61	3.88	0.86	0.55	.577	-

〈그림 10〉과 〈그림 11〉은 각각 4년제 대학(중요도 평균: 5.44, 수행도 평균: 4.88)과 전문대학(중요도 평균: 5.06, 수행도 평균: 4.49) 응답자의 인식에 따른 IPA 분석 결과를 사분면 모형과 대각선 모형을 통해 제시한 것이다. 제 1사분면(유지)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③-2, ③-4과제가 포함되었으나 전문대학에는 이들 과제가 포함되지 않았고 다만 ①-1, ①-3, ②-2과제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지원 서비스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4년제 대학과 교육지원 서비스가 중시되는 전문대학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것이다. 제 2사분면(집중)에서는 전문대학에서 ⑦-1과제가 포함된 것이 특징적이었으며, 이는 전문대학에서 도서관 발전을 견인하는 대학도서관 평가에 대한 수행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는 것에 기인한다. 제 3사분면(저순위)에서는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과 비교하여 ②-2와 ⑦-1에 대한 중요도나 수행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간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과제에 대한 절대적인 중요도나 수행도는 4년제 대학이 더 높으나 사분면 모형의 특성상 십자선이 대학 유형별 평균값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함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제 4사분면(과잉)에 속한 과제에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4년제 대학에서는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과 포용서비스가 과잉 영역으로 분류되었고, 전문대학에서는 해외 학술정보 확충 관련 과제가 해당 영역으로 분류되어, 두 대학 유형 간 인식의 간극이 발견되었다. 추가적으로 대각선 모형으로 대학 유형별 세부과제에 대한 IPA 결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세부과제의 수행도가 그 중요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도서관 정책에 대한 성과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그림 10〉 세부과제에 대한 IPA 분석 결과 (4년제 대학)



〈그림 11〉 세부과제에 대한 IPA 분석 결과 (전문대학)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제3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국내 대학도서관 정책의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자료, 인력, 자료구입비, 이용 통계 등 최근 5년간 주요 지표 변화를 배경으로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17개 세부과제에 대한 정성적인 성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과는 대학도서관 직원 369명의 설문 응답을 토대로 종합계획에 대한 인지 수준과 활용 현황, 그리고 세부과제별 중요도와 수행도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최근 5년간 국내 대학도서관의 주요 통계에서는 대학도서관 직원 1인당 교육 참여 시간과 재학생 1인당 상용 DB 다운로드 건수의 증가가 긍정적인 변화 지표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 수, 재학생 1,000명당 도서관 사서 수,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전문대학), 재학생 1인당 대출 책 수 등의 주요 지표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등 개선을 통한 선순환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도서관이 직면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을 통한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도서관 직원 대상의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70% 이상이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약 60% 이상이 이 계획을 소속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종합계획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가장 빈번하게

www.kci.go.kr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대학의 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 따른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대학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 차원의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은 종합계획에 대한 인지 수준이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덕현(2019)의 연구에 의하면 발전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은 도서관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운영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종합계획은 대학도서관 자체 발전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종합계획 수립 자체가 대학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도서관 현장 관계자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장덕현, 2019).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종합계획의 중요도가 낮다고 응답한 이유로 예산 및 인력 부족, 계획 이행에 대한 보상이나 제재 부재, 대학의 특성 미반영 등이 언급되었는데, 이러한 점들은 향후 종합계획 수립 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 소속 응답자들이 강조한 종합계획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특정 유형의 대학에 편중되지 않는 범용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과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2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 17개에 대한 중요도-수행도(IPA) 분석에 따라 성과와 향후 남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교수-학습 지원의 강화, 도서관 시설 및 공간 개선, 해외 학술자원 접근성 확대가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로 나타났으며, 대학도서관 인력이나 재정 확충 및 정책 개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매체 교육이나 연구성과 분석, 연구윤리 체제 마련 등의 연구지원 서비스는 타 과제와 비교하여 중요도나 수행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 운영이나 포용 서비스 확대 과제는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IPA 대각선 모형을 적용한 결과, 모든 세부과제의 수행도가 중요도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기존 종합계획에 제시된 세부과제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과제에 대한 IPA 분석 결과를 응답자의 소속 대학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해외 전자저널이나 인쇄 학술지 구독과 관련된 과제는 전문대학과 비교하여 4년제 대학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학생 대상 기초소양 함양 프로그램이나 포용 서비스 확대 관련 과제는 전문대학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 목표에 따른 특성이 대학도서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속 대학 유형별 과제별 중요도 및 수행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IPA 대각선 모형을 적용한 결과 모든 유형의 대학에서 모든 세부과제는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2차 종합계획의 모든 세부과제에 개선의 여지가 많아, 차기 종합계획에서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www.kci.go.kr

무엇보다 모든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수준이 낮고 성과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는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모색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앞으로의 종합계획이 세부과제에 대한 구성보다 종합계획의 체계 전환과 외부 정책과의 강력한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대학 운영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의 대학 평가 및 다양한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도 대학도서관 관련 항목은 미미한 실정이다. 교육부와 KERIS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대학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를 대학의 평가와 연계하는 것 등이 하나의 실행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 관련 법령은 대학도서관 상황을 반영하고 대학도서관 진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하여 개선될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직원의 인식에 기반하여 제2차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를 분석한 것이다. 오늘날 추진과제 대한 이행점검과 함께 공공부문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측면은 계획 추진에 대한 보다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2006년부터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도 유사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최적의 성과분석은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달성가능한, 현실적인, 기한이 있는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의 명확한 제시(Doran, 1981)를 통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단계에서 성과지표를 포함한 성과관리 체계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전략목표와 과제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성과지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수행된 제2차 종합계획의 성과분석은 성과지표에 기반하지 않아 구체성과 측정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체계적인 평가 및 성과분석을 위해 성과지표를 포함한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종합계획 이행의 추진력을 확보하여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교육부 (2019).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 종합계획: 2019~2023.

교육부 [발행년불명]. 통계조회, Rinfo 학술정보통계시스템. 출처: http://www.rinfo.kr/stat/search/basic/1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8호.

대학도서관진흥법. 법률 제18547호.

오선혜, 곽승진 (2021). 연구 수명주기 기반 대학도서관 연구지원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3), 321-342. https://doi.org/10.4275/KSLIS.2021.55.3.321

www.kci.go.kr

이재원 (2019).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정책과 정책과제 채택 추이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83-99. https://doi.org/10.4275/KSLIS.2019.53.3.083

이제환 (2012). 한국 대학도서관정책의 추이와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317-346. http://dx.doi.org/10.16981/kliss.43.4.201212.317

장덕현 (2019). 국내 대학교 도서관발전계획의 효용성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213-230. https://doi.org/10.4275/KSLIS.2019.53.4.213

장윤금, 이혜은, 모영규, 전경선 (2020). 국내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54(3), 97-114. https://doi.org/10.4275/KSLIS.2020.54.3.097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법률 제14839호.

정영미 (2020). 대학도서관 공간에 대한 이용자와 사서의 인식 및 수요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1), 223-242. https://doi.org/10.4275/KSLIS.2020.54.1.223

최재황, 이종욱 (2019). 국내 및 북미 주요 대학의 도서관 통계 비교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197-221. http://dx.doi.org/10.16981/kliss.51.3.202009.19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9). 국가 연구경쟁력에 미치는 학술정보자원 결정요인 분석 (CR2019-8).

한국도서관협회 (2013).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한혜영 (2005). 연구중심대학의 도서관 지원과 연구경쟁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4), 25-44.

Bacon, D. R. (2003). A comparison of approaches to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45(1), 55-71.

Boley, B. B., Mcgehee, N. G., & Hammett, A. L. T. (201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of sustainable tourism initiatives: the resident perspective. Tourism Management, 58, 66-77.

Chen, J.-K. (2021). A new approach for diagonal line model of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 case study of tourist satisfaction in China. SageOpen, 11(1). https://doi.org/10.1177/2158244021989276

Doran, G. T. (1981). There's a S.M.A.R.T. way to write management's goals and objectives. Management Review, 70(11), 35-36.

Goodall, D. & Pattern, D. (2011). Academic library non/low use and undergraduate student achievement: a preliminary report of research in progress. Library Management, 32(3), 159-170.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www.kci.go.kr

Montenegro, M., Clasing, P., Kelly, N., Gonzalez, C., Jara, M., Alarcòn, R., Sandora, I., & Saurina, E. (2016). Library resources and students' learning outcomes: do all the resources have the same impact on learning?.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2(5), 551-556.

Oppenheim, C. & Stuart, D. (2004). Is there a correlation between investment in an academic library and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ratings in the Research Assessment Exercise?. Aslib Proceedings, 56(3), 156-165.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ng, Durk Hyun (2019). Perceived effects and tasks of library strategic plans of universit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4), 213-230. https://doi.org/10.4275/KSLIS.2019.53.4.213

Chang, Yunkeum, Lee, Hye-Eun, Moh, Young-Kyu, & Jeon, Kyungsun (2020). Exploring key strategy areas for academic library development planning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3), 97-114. https://doi.org/10.4275/KSLIS.2020.54.3.097

Choi, Jae-Hwang & Lee, Jongwook (2019).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istics of academic libraries of major universities in South Korea and North Americ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197-221. http://dx.doi.org/10.16981/kliss.51.3.202009.197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 Evaluation. Act No. 14839.

Han, Hye-Young (2005). Comparative analysis on current status of research university librari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4), 25-44.

Jung, Youngmi (2020). Users and librarians' perceptions and needs analysis on the university library spa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1), 223-242. https://doi.org/10.4275/KSLIS.2020.54.1.223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2019).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National Research Competitiveness through Academic Resources (CR 2019-8).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Korean Library Standards. Seoul: Korean Library

www.kci.go.kr

Association.

Lee, Jae-Whoan (2012). Progress and problems in Korean academic library polic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317-346. http://dx.doi.org/10.16981/kliss.43.4.201212.317

Lee, Jae-Won (2019). A study of policy and agenda adoption trends of university librar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3), 83-99. https://doi.org/10.4275/KSLIS.2019.53.3.083

Ministry of Education (2019). 2nd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of university libraries: 2019～2023.

Ministry of Education [n.d.]. Lookup Statistics, Rinfo. Available: http://www.rinfo.kr/stat/search/basic/1

Oh, Sunhye & Kwak, Seung-Jin (202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research support service model of the university library based on the research life cyc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3), 321-342. https://doi.org/10.4275/KSLIS.2021.55.3.321

University And College Libraries Promotion Act. Act No. 18547.

University And College Libraries Promotion Act Enforcement Decree. Presidential Decree No. 32528.

www.kci.go.kr